

러시아, 자동차 매출시장 성장세 지속

1. 자동차 매출시장, 높은 성장세 시현

□ 2011년 신차 매출규모, 전년 대비 38.7% 증가한 265만 대 기록

- 러시아 자동차시장은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저점을 지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, 2010년 및 2011년 신차 매출규모는 각각 전년 대비 30.8% 및 38.7% 증가하여 높은 성장세를 시현함.
- 2011년도 자동차 매출시장 규모가 증가한 요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로 2009년과 2010년에 급감하였던 수요가 고유가에 따른 러시아 경제 회복세와 정부의 신차판매에 대한 지원정책 등에 의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.
 - 러시아 정부의 자동차 구매 지원 프로그램은 신차교체 보조금 지원, 신차론 금리우대 등으로 정부지원 차종에 대한 신차 판매를 지원했으며 2009년 3월 도입된 이후 1년 연장된 2011년 하반기에 만료되었음.

<표 1> 연도별 러시아의 자동차 매출 추이

단위: 만 대, %

구 분	2006	2007	2008	2009	2010	2011
판매대수 ^{주)}	199.5	260.4	303.0	146.0	191.0	265.0
증감률(%)		27.5	30.5	16.4	-51.8	30.8

주) 승용차(Car)와 경상용차(Light Commercial Vehicle: LCV)를 합한 수치임.
 자료: Global Insight.



2. 국영기업과 외국기업 대부분 매출규모 큰 폭 증가

□ 정부 지원정책에 따른 매출 증가, 하반기에는 증가세 둔화

- 2011년도 자동차 그룹별 매출현황을 보면 아프트바즈(AvtoBAZ)와 르노니산(Renault-Nissan) 그룹이 약 87만 대, GM 그룹이 약 24만 대, 폭스바겐 그룹이 약 23만 대의 매출을 기록하며 상위 1~3위를 차지하였음.
- 러시아 정부의 신차교체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업체는 러시아 최대 국영 자동차기업인 아프트바즈(AvtoBAZ)로 약 58만 대의 매출규모를 기록하였음.
- 신차교체 보조금 할당 예산이 상반기에 소진 완료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자동차 매출시장의 성장세가 크게 감소하였음.
- * '11년 분기별 증가율(전년 동기 대비): 73%(1분기) → 42%(2분기) → 28%(3분기) → 25%(4분기)

□ 현대아, 기아차 등 우리기업의 시장점유율 상승

- 2011년 러시아 내 주요 자동차 그룹별 매출 현황을 보면,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판매량이 전년 대비 각각 87.7%, 46.7% 증가하여 높은 신장세를 보임.
- 현대차와 기아차의 시장점유율은 2010년 10.0%에서 2011년 11.9%로 상승하였음.

<표 2> 2010~11년도 주요 자동차 그룹별 매출 현황

단위: 대, %

순위	자동차 그룹	2011년	2010년	증가율
1	AvtoBaz/Renault-Nissan	878,990	703,678	24.9
2	GM Group	243,265	158,567	53.4
3	Volkswagen	228,799	131,312	74.2
4	Hyundai	163,447	87,081	87.7
5	KIA	152,873	104,235	46.7

자료: Association of European Businesses.



- 글로벌 금융위기 후 러시아 자동차시장에서는 수입 신차보다 러시아 국내산 및 러시아 내에서 생산되는 외국산 브랜드 차량 판매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임.

3. 향후 러시아 자동차 매출시장 전망

□ 2012년 정부 지원 프로그램 폐지 등에 따른 매출 둔화 가능

- 정부 신차보조금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만료됨에 따라 과거 동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 대상이었던 낮은 가격대의 러시아산 자동차들의 매출 증가세의 둔화가 전망됨.
- 또한,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인한 경제성장세 둔화 전망, 국내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향후 자동차 구매심리에 제약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.
- 하지만, 고유가로 인한 러시아의 수출 증가로 외화유입이 확대되면 구매력이 상승하여 내수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자동차 매출시장이 성장할 요인도 배제할 수 없음.

□ WTO 가입으로 인한 자동차시장 개방 점차 확대 예상

- 금년 상반기 중 WTO 정식가입 절차가 진행된다면, 현재 30%인 수입 자동차 관세가 7년간 단계적으로 15%까지 인하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러시아 자동차 시장은 2014년 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점차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.
- Ernst & Young은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러시아 시장이 유럽 및 아시아 자동차 기업들에게 매출 확대를 위한 주요 각축장이 될 것으로 전망함.

【황 상 하】